질높은 전문 정보공간으로 자리한다

새롭게 등장한 전문서점 각광… 종교·미술·아동 등 분야도 다양

'고급정보의 공간'으로서 전문서점이 일반 독자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매장 공간도 훨씬 넓고 쾌적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 전문도서의 책임있는 관리와 홍보, 서비스의 질도 높아졌다.

몇년 사이 대형매장과의 차별화, 전문화의 특성을 내걸고 변신을 시도하거나 새롭게 등장한 전문서점들은 변화된 시대의 서점문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차별화전략은 전문분야 종사자나 각 분야의 깊이있는 독자층을 확보함으로써 실제 매출에도 신장세를 보여 경쟁력도 상승해가고 있다.

'책방 정신세계' 재개장

정신세계나 종교와 관련된 전문서점들로는, 비교적 탄탄한 기반과 인지도를 가졌던 '책방 정신세계'(대표 송순현)가 지난해 9월 건물주와의 임대관계에 의해 동숭점의 문을 닫은 이후 4개월간의 휴식기간을 마치고 교보문고 옆 종로구 청진동에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며, 법련사에서 주관하는 '불일서점'(대표 변창현)이 오랜 기간의 공백을 깨고 지난달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

또한 '책방 여시아문(如是我聞)'(대표 김광삼)이 94년 8월 새로 등장한 전문서점으로 서서히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외에 기독교 관련 전문서점인 '말씀사' '기독교서회' '엠마오서적센타' '교문사' 등은 교인들이 오래 전부터 애용해온 서점으로 알려져 있다.

'책방 정신세계'는 출판사 '정신세계사'의 이미지를 토대로 지난 90년 5월 명상, 수행, 동양사상, 철학, 종교 등의 서적을 취급하는 전문서점으로 문을 연 이후, 처음 1, 2년은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현재는 1만명이 넘는 회원을 관리하고 1400명 정도가 통신판매회원제에 가입돼 있다.

명상·수련·기공 등의 강좌와 모임을 실시하는 '정신세계원'을 운영하면서, 정신세계와 관련된 7천여종의 도서를 더욱 세분화시켜 구비하고 있으며 명상물품 코너를 확충하고 민속품 코너를 신설해놓은 점이 특징적이다. 유희남 전무는 철저한 회원관리 덕분에 대형서점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전하며 수련물품전이나 설명회, 신간·근간의 적절한 안내를 통해 독자와의 연계성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과 한 사업체를 구성, 종로구 견지동 3층 건물에 나란히 위치해 있는 '책방 여시아문'은 60평 규모에 7천여종의 불교 관련서적을 구비해놓았다.

보련각, 운주사 등 오래된 불교서점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시작한 여시아문의 조동규 차장은 "여타의 용품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순수하게 책 중심의 불교전문서점으로서는 효시"라고 강조하면서 각종 서지정보와 출판예정 정보의 전달에 집중하고 판매용 도서 외에 희귀본의 열람용 코너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회원관리와 통신판매 등 독자서비스에 주력한 결과, 하루 2백만원 이상의 매출을 보이고 독자도 10배 정도는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쉽게 변동하지 않는 꾸준한 고객이 찾아드는 전문서점의 설자리는 사실상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한다.

미술전문서점도 시장확보

한편 다소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중국학, 동양학 관련서를 취급해온 전문서점으로, 동숭동 대학로 문예진흥원 근처 우당기념관 3층에 자리잡은 삼련서점과 출판사 동문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문선서점', 비원 맞은편의 '알타이하우스' 등이 있다.

1948년 '생활' '독서' '신지' 3대 서점을 통합, 단일회사로 출발한 이래로, 지난 1991년 3월 중국문학을 전공한 전직교수 김명호씨가 새롭게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삼련서점'은 양국수교 이후 책 반입절차가 간편해져 매달 1500여권의 신간을 들여오는 외에, 중국문화의 이해를 위해 《중국 미술사》 등 10여권의 책을 직접 출판하고 여러

불교서적 전문서점 '여시아문'.(위)
최근 광화문에 재개장한 책방 '정신세계'.

출판계 소식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 열려

문예출판사·문학과지성사·홍우동씨 수상

왼쪽부터 윤병태 교수·전병석 사장·민병덕 회장·김병익 사장·홍우동 사장.

제18회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이 지난 2월 24일 오후 4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출판학회(회장 민병덕)가 매년 출판문화와 출판학의 발전에 공헌한 출판사와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 수여하는 이번 상의 수상사 및 수상자는 기획·편집부문에 30년 동안 인문교양서를 출간해 온 문예출판사(대표 전병석), 경영·영업부문에 문학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쌓은 문학과지성사(대표 김병익), 특별공로부문에 활자체 개발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홍우동(동국전산 대표)씨 등이다.

아울러 한국출판학회는 같은 날 96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전년도 사업평가와 96년 사업계획, 정관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최근 몇년 사이 일반서점과의 차별화 전문화를 내걸고 새롭게 등장한 전문서점들이 점차 독자층을 넓히며 자리잡아 가고 있다. 종교와 예술, 어학, 어린이 등 아직 몇몇 분야에 한정된 이들 전문서점의 경쟁력 향상은 고급 정보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다른 분야에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차례 도서전과 미술전람회를 열기도 했다.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부설서점 외에 유일한 미술 전문서점으로 돋보이는 '아티누스(Art In Us)'(대표 전재국)는 94년 1월 출판사 시공사에서 예술전문서점을 표방하면서 홍대 앞에 문을 열어, 현재 60평 규모에 순수미술, 디자인, 공예, 건축, 사진과 관련된 8500종 2만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다품종소량의 외서를 취급하기 때문에 독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책을 수입해 들여오는 일이 가장 어렵다고 토로하는 변청자 대리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독자의 지적 관심도가 세분화되어가는 시대에, 대형서점의 상업성과는 변별력을 유지하면서 독자에게 관련서적의 우수한 정보제공에 능동적인 전문서점의 가능성은 크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도서목록과 시기별·유형별 신간안내를 겸한 카탈로그를 제작할 예정이며 도서관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점 내부의 환경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90년 1월 최초로 어린이 전문서점을 표방해 성공적인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는 '초방'(대표 신경숙)은 좋은 어린이책의 광범위한 보급을 위해 요즈음도 분주하다. 이대 앞에 위치한 20평 규모의 공간에 3천권 정도의 어린이책을 소장하고, 건물 지하에는 원화 전시장을 갖추고 있어 특강과 전시회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책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의 도서보급에 주력, 현재 전주, 강릉, 목포, 남원 등 10개 지방에 초방 지점이 생겨났으며, 어린이책만을 전문적으로 도매유통하는 '서당'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유통망을 꾀하고 있다.

'초방'에 이어 은평구 대조동의 '동화나라' '춘천 동화나라' '부산 어린왕자' '제주곰솔' '대전아라야글방' 등의 어린이 전문서점이 증가돼 질좋은 어린이책 보급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동안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좋은 어린이책이 없었다는 점이었는데, 지난 1년 사이 단행본 위주의 우수한 책과 그림책들이 나와 어린이 전문서점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다.

신경숙 사장은 "어린이책의 특성상 대여점의 타격을 훨씬 덜 받고, 유아용 도서개발에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여타 전문서점에 비해 어린이 전문서점의 전망은 밝다"고 내다본다.

이밖에 독일서 전문서점 '소피아'를 비롯한 해외원서 전문서점들, 대학로에 위치한 '고려의학서점', 영화 관련 책들과 비디오·포스터를 판매하는 동숭아트센타 내 '키노', 사진 관련서점 '포토박스' 등 각종 분야의 전문화와 차별화를 내세워 운영되고 있는 전문서점은 많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차별화 필요

이와 같은 전문서점들은 대형매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독자의 욕구를 채워주고, 도서문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손쉬운 구입도 가능해, 상업성에 크게 치중하지 않아도 점점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게 되리라는 게 서점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또한 철학·문학·기술과학·한국학 등 보다 분화된 전문서점의 움직임이 여러 출판사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고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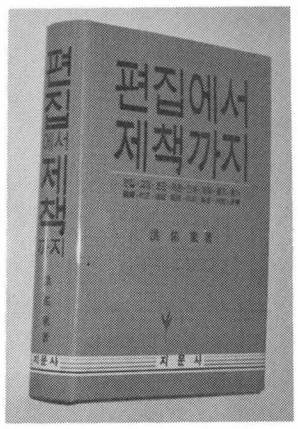
초방의 정상진 실장은 "전문서점을 운영함에 있어 시급한 과제는 출판, 서점계가 전체적으로 앓고 있는 유통문제의 해결이다. 또한 전문서의 입수에서부터 보급까지 발빠른 대응이 생명인 전문서점들은 앞으로 상호 정보교환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서점관계자들도 아무 책이나 취급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양서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과 전문지식의 축적이 강조돼야 한다"고 피력한다.

——이정민 기자

● 출판 기획·편집 디자인·인쇄 제책·각종 홍보물 제작의 길라잡이

편집에서 제책까지

洪 佑 東 著



• 4·6배판 고급 양장본
• 640쪽(올칼라 100쪽)
• 본문 : 스노우 화이트 최고급지
값 · 100,000원

이 책이 비치되어야 할 곳과 보아야 할 사람

• 국립·공사립·각 대학 도서관의 절대비치도서
• 각 대학교·전문대학·기능대학·특수학교의 교재
• 그룹·중소기업의 기획·홍보실의 필수도서
• 사사·사보 편찬팀의 실용도서
• 출판 편집·인쇄 기획실의 활용도서
• 편집 디자인학원의 필수교재
• 산업 디자인 연구인의 어드바이스
• 현직에 있는 사람, 실무팀들이 더욱 이 책을 찾습니다

※ 주문 즉시 본사 부담으로 직송해 드립니다

지문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448-6 ● 전화 : 715-8304·2305 719-3923 718-9388 팩스 : 718-9387